

## 주체적국방공업령도사에 아로새긴 조선로동당의 빛나는 공적 또다시 만천하에 과시 극초음속미사일시험발사에서 련속성공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극초음속미사일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참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1월 11일 국방과학원에서 진행된 극초음속미사일시험발사를 참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는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

과학연구부분앞에 극초음속미사일부분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전략적 과업을 제시하였으며 당중앙은 당대회 과업판철을 위하여 극초음속무기체계 개발의 전 과정을 강력히 인도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시험발사에 앞서 국방과학원 원장으로부터

극초음속미사일무기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해설을 청취하시였다.

시험발사는 개발된 극초음속무기체계의 전반적인 기술적특성들을 최종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려명이 밝아올무렵 원수님께서 지켜 보시는 가운데 새벽하늘의 고요와

미명의 장막을 밀어내며 주체무기의 발사속음이 천지를 뒤흔들고 화광이 대지를 뜨겁게 달구는 속에 강위력한 조선의 힘의 실체가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발사된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는 거리 600km계선에서

부터 활공제도약하며 초기발사방위각으로 부터 목표점방위각으로 240km 강한 선회기동을 수행하여 1,000km 수역의 설정 표적을 명중하였다.

최종시험발사를 통하여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의 뛰어난 기동능력이 더욱 뚜렷이 확증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5대과업중 가장 중요한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극초음속무기개발 부문에서 대성공을 이룩한 미사일연구 부문 과학자, 기술자, 일군들과 해당

당조직들의 실천적성공을 높이 평가하시고 당중앙위원회 이름으로 특별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전략적인 군사력을 질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우리 군대의 현대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국방과학 연구부문에서는 우리 당의 국방발전 정책과 전략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비상이 강화하기 위한 력사적인 성업에서 계속 훌륭한

성과들을 쟁취해야 한다고 고무격려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날 극초음속무기연구개발부문의 핵심성원들을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 부르시여 뜨겁게 축하해주시면서 앞으로도 계속되는 첨단국방

과학연구성공과써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강화하고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해나가리라는 커다란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며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다.

본사기자

# 민족의 영광과 행복으로 빛나는 10년

##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새시대를 펼쳐시여

새로운 주제100년대가 시작되어 지난 10년, 반만년의 우리 민족사에 비해물 때 순간과도 같은 이 나날 경여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으로 만

데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었다. 그가운데는 공화국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새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해 바쳐오신 가슴뜨거운 헌신과 로고도 있다.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 인민들이 이곳에서 문명한 생활을 향유하면서 세계적주세도 알고 그것을 압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우리는 인민들이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향유하게 하는데서도 세계를 디디고 갈라서야 한다고 뜨겁게 가르쳐주시었다.

그뿐이 아니다. 경여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언단에서 문명강국을 일떠세우는것은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중요한 목표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건설하는 문명강국은 사회주의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는 나라, 인민들이 높은 창조력과 문화수준을 지니고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며 향유하는 나라라고 천명하시었다.

### 문명강국건설의 앞길을 밝혀주시여

사람들은 누구나 고도의 문명한 환경에서 살며 일할것을 바라며 그 지향과 요구는 시대의 발전과 함께 더욱 높아진다. 오늘날 세상을 둘러보면 제나름의 문명을 자랑하면서 문명의 표본국이라고 자처하는 국가들도 있다. 하지만 그 나라들에서는 인민이 문명의 진정한 향유자, 주인공으로 되지 못하고있다. 경여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인민을 위하고 인민이 향유하는 문명강국건설의 진로와 목표를 명철히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현명하게 령도하고 계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다. 지금도 가슴뜨겁게 되새겨진다. 주제101(2012)년 9월 어느날 경여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준공을 앞둔 통일거리운동센터를 찾아주시었다. 그때 건강체력단련에 리용되는 어느 한 기계를 살펴 보시던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문명한 생활은 자분가들만이 향유하는것이 아니라고, 문명한 생활은 정신적 및 물질적부의 창조자인 인민들부터 향유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 인민들이 이곳에서 문명한 생활을 향유하면서 세계적주세도 알고 그것을 압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우리는 인민들이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향유하게 하는데서도 세계를 디디고 갈라서야 한다고 뜨겁게 가르쳐주시었다. 그뿐이 아니다. 경여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언단에서 문명강국을 일떠세우는것은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중요한 목표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건설하는 문명강국은 사회주의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는 나라, 인민들이 높은 창조력과 문화수준을 지니고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며 향유하는 나라라고 천명하시었다.

그 나날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안으시고 낮이나 밤이나 온 나라 방방곡곡을 찾고찾으시는 경여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헌신의 자욱우에 꽃피는 이야기들은 그 얼마나 많은가. 로동당시대 문명창조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특색있는 인민봉사기인 양덕온천문화휴양지가 전하는 이야기도 그중의 하나이다.

경도따라 공화국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문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거창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었다.

### 사회주의문명의 개화기를 열어 나가시여

전체 인민을 풍부한 지식과 높은 문화적소양을 지닌 사회주의건설의 힘있는 담당자로 키우며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시려고 경여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민헌신의 낮과 밤을 바쳐 오시었다. 그 나날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안으시고 낮이나 밤이나 온 나라 방방곡곡을 찾고찾으시는 경여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헌신의 자욱우에 꽃피는 이야기들은 그 얼마나 많은가. 로동당시대 문명창조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특색있는 인민봉사기인 양덕온천문화휴양지가 전하는 이야기도 그중의 하나이다.

저본 결과 그중 유리한 지역으로 평가된 양덕군의 온천지구를 현직고찰하고 멋있게 하나 지으려고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온천골들을 돌아보시며 온천의 용출량과 물온도를 비롯한 중요특성에 대하여 직접 료해하시던 그이께서 어느 한 용출수로 가실 때 예견치 않았던 소낙비가 억수로 쏟아져내렸다.

하지만 경여하는 원수님께서는 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쉬임없이 온천물이 뿜어져나오는 용출수를 보시면서 귀한 보석이라도 찾으신듯 환하게 웃으시며 뜨거운 온천물에도 주저없이 손을 담그어보시었다.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과 행복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이렇듯 삼복의 무더위도, 비내리는 험한 날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인민사랑의 자욱을 새겨가신 원수님께서는 무려 2 000여 건에 달하는 양덕온천문화휴양지형성안을 지도하여

주시며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세상에 으뜸가는 문명의 별천지로 꾸려주시었다.

그뿐이 아니다. 경여하는 원수님께서는 그해에만도 폭염강행군, 철야강행군으로 삼지연시의 건설장들과 총중농장, 감자가루생산공장, 락산바다리어양어사업소, 염분진호염전건설장, 청진가방공장, 송도원종합식료공장, 삼천메기공장, 평양무래도전차공장, 금산포것갈기공장 등 나라의 방방곡곡에 위민헌신의 불멸의 자욱을 새기시었다.

경여하는 원수님의 불문불휴의 헌신과 로고에 의하여 창조된, 미려과학자거리, 온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문수물놀이장, 통라인민유원지,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자연박물관, 삼지연관현악단 극장, 대동강수산물시당, 류경치과병원, 유유아동병원, 온정차음료공장, 미래상점, 류경치과공장 등 사회주의문명이 어떤것인가를 응

면적으로 말하여주는 회한한 창조물들이 이 땅의 도처에 일떠섰다.

또한 삼지연시가 산간문화도시의 훌륭한 표준, 리상적인 본보기지방도시로 천지개벽되고 검덕지구에서 사회주의선진 산악협곡도시가 일떠서고있으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약동하는 발전상과 저력을 크게 과시하며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이 기본적으로 결속되었다.

참으로 세상에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을 위해서라면 웅대한 리상과 포부, 비상한 실천력으로 사회주의문명의 개화기를 열어나가시는 경여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공화국은 머지않아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문명국으로 우뚝 솟아올라갈것이며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향유하는 인민들의 기쁨과 행복의 웃음소리가 창공에 높이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배영일



## 추억도 승리, 미래도 승리

지나온 해는 추억으로 돌아보고 맞이한 새해는 희망으로 바라보는것이 한해가 바뀌어 시점에선 인간들의 심리이다. 이 시각 공화국인민모두의 가슴속에 가득 차고넘치는것은 걸어온 길에 대한 승리의 추억이고 걸어갈 길에 대한 승리의 확신이다. 얼마전에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경여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2021년을 조국번영사에 특기할 자랑스런 승리의 해로 긍지높이 총화하시면서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뭉쳐 그 어떤 만만시련도 뚫고나갈 굳은 신념과 역센 힘을 지닌 위대한 인민이 있고 올해와 같이 업축한 환경속

에서도 자력으로 커다란 성과를 이루어낸 귀중한 경험이 있기에 우리 당과 인민은 또다시 자랑찬 승리를 쟁취하게 될것이라고 확언하시었다. 승리로 걸어온 길, 승리가 기다리는 길! 공화국의 승리는 경여하는 원수님의 무한한 헌신과 로고의 낮과 밤과 맞바꾼 고귀한것이고 그의 령도를 받들어 온 나라 인민이 만만시련도 이겨내며 안아오고 또 이룩해가는 영구불변한것이다. 지난해의 승리의 령정을 돌이켜 보며 누구나 가슴들먹인다. 겹쳐드는 재난과 재해속에서 온 행성이 뭉뚱질 때 오직 공화국에서는 시기시기, 단계단계마다

인민을 지키고 나라를 사수하는 가장 곧바른 승리의 리징표들이 명시되었고 승리의 활주로가 펼쳐졌다. 국가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장엄한 투쟁에서 벅찬 승리를 안아오기 위한 진로들을 밝힌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비롯한 중요회의들, 첫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받아안고 끝없는 행복에 웃을것은 아이들과 이 땅우에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사회주의선진들과 인민의 보급차리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 트라에서의 뜻깊은 경축연회... 이 소중한 추억들을 합쳐놓으면 뜻깊은 승리의 해인 2021년이 되고 승리의 길을 따라 과감히 직군해온 위대한 조국, 위대한 인민의 모습이다.

음단계로 강력히 인도하는 향도적 투쟁방침을 제시하시는 경여하는 원수님을 뜨거운 격정속에 우리들며 그리고 새해의 첫아침 그이를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은 공로자들과 로력혁신자들의 행복넘친 모습에서 위대한 승리의 레일을 확실성있게 보고 있다. 행성의 곳곳에서 불행에 빠진 사람들이 제나름의 아픈 추억과 한치라도 내다볼수 없는 비관에 잠겨 신년의 기쁨마저도 느끼지 못하고있지만 공화국에서는 누구나 마음껏 승리를 경축하고 승리를 꿈꾸며 힘찬 직군보복을 내짚고 있다. 하기에 얼마전 어느 한 나라의 인터넷에는 이런 글이 올랐다. 《조선에서 열린 이번 전원회의는 김정은원수님의 밝은 미소속에 마감되었다. 어둡침침한 이 행성을 밝히고도 남음이 있을 그 찬연한 미소는 승리의 자만이 지을수 있는 고유작작한 미소이며 가장 곧바른 승리의 진로를 밝혀주는 등불과도 같은것이다. 이런 령도자를 모신 조선의 앞길에 승리만이 있는것은 너무도 필연적인것이 아닐까.》 백승의 령도자를 모시며 공화국은 걸어온 길도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이지만 나아갈 길도 위대한 승리의 길인것이다. 주제조선의 승리는 과학이며 진리이다.



본사기자 리경철

## 열화같은 위민헌신의 세계

국가부흥의 새시대를 확실성있게 열어가는 경여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올해의 첫 려정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어 수령님들께 삼가 새해의 인사를 드리고서도 평범한 근로자들과 새해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며 정사를 펴시는데로 시작되었다.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하여 국사를 이끄시는 경여하는 원수님께서는 새해의 첫아침 애국의 성실한 노력으로 조소와 일터마다에서 소중한 성과들을 이룩하여 지난해를 빛나게 결속하는데 공헌한 공로자, 로력혁신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고무격려하시었다. 그리고 5개년계획수행의 확고한 담보를 구축하고 국가발전과 인민생활에서 뚜렷한 개편을 이룩하기 위한 새해의 장엄한 투쟁에서도 핵심적, 선구자적역할을 계속 훌륭히 수행해 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그날 전체 참가자들은 지난해 한해 불문불휴의 집력적인 령도로 사회주의건설사에 특기할 기적적승리를 안아오시고도 그 성과

를 고스란히 인민들에게 돌려주시고 응당 하여야 할 일을 한 자기들에게 크나큰 영예와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여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열렬한 호모의 정으로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아니 온 나라 인민들이 경여하는 원수님의 위민헌신의 세계에 눈물을 적시었다. 모두가 가슴뿌듯이 돌이켜보는 지난해의 기적적인 성과들은 경여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위민헌신의 려정에 의하여 마련된 빛나는 결실이다. 지난해 첫아침 인민의 기쁨과 행복을 위하여,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칠 억척불변의 의지가 맥박치며 진철서한을 전체 인민에게 보내신 그이께서는 온 한해의 날과 밤을 열화같은 위민헌신으로 맞고 보내시었다. 중요당회의들을 려이어 소집하시오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실천방략들을 제시하시였으며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건설장착공식을 비롯한 나라의 전역을 종횡무진하시며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5개년계획수행으로 전체 인민을 힘차게 불러일으키신 경여하는 원수님이시이다.

인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향상된 생활조건을 제공하는 문제, 국토관리정책을 철저히 집행할때 내한 문제,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날로 악화되는데 맞게 방역대책을 더욱 빈틈없이 세출때 대한 문제, 한해 농사결속을 잘하도록 할때 대한 문제 등 국가와 인민이 중시하고 해결하여야 할 과업과 방도를 명철하게 밝혀주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

본사기자 리철

한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역사적로정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애족의 한평생은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고 그 길에서 민족사에 길이 빛날 커다란 업적을 쌓으신 거룩한 한평생이었다.

그이의 위대한 사색과 발걸음은 민족의 최대속원의 조국통일과 하나로 잇닿아있었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의 앞길에는 여전히 많은 시련과 난관이 가로 놓여있다.

조선민족은 조국통일의 주인이며 직접적담당자이다. 그 어떤 외세도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끼여들어 간섭하거나 개입할 명분이 없다.

우리의 민족은 얼마든지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고 민족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수 있는 슬기롭고 힘있는 민족이다.

이 땅에는 외세에 의하여 갈라진 민족의 아픔을 알고 호르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분계선을 넘어 북에서 남으로 호르는 립진강이다.

호리신 안색으로 남녘땅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일군들에게 부모처자들이 서로 갈라져 사는 사람들의 심정이야 오죽하겠는가

고 말씀하시셨다고. 분계선 가까운 여기에 나오면 그대로 멀리서나마 남녘인민들의 얼굴을 볼수 있을것같고

울이시고 주실수 있는 사랑과 정을 다 부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를 두고 제일 심려하고계신다고 말씀하시었다.

이 물음에 대답을 주는 고귀한 지침이 있다.

지혜와 의지, 힘으로 민족이 아닌 민족이

그 마을에는 강너머 남쪽에 친척, 친구들을 두고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언제나 남녘동포들을 생각하시며

을 두고 그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시며 그리도 마음쓰시는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시기에 백리청춘과

에 대한 생각으로 늘 마음쓰시는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시기에 백리청춘과

생각하시며

포들을 얼마나 마음속에 소중한 안고계셨는가 하는것은 하나의 감동깊은 이야기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정년 한해에 한번밖에 오지 않는 뜻깊은 생신날의 한밤마저 남녘동포들을 생각하시며 조국통일에 대한 사명감으로 마음을 불태우시는 장군님의 숭고한 모습은 온 겨레가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따를 위대한 태양의 모습이었다.

이 물음에 대답을 주는 고귀한 지침이 있다.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조선민족의 위대한 태양은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것도 아니다.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역사적로정

제 5 차 범민족대회의 성과적개최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는것은 공화국의 일관한 립장이고 확고한 의지이다.

이밖의 대회기간에 진행된 조국통일대론회, 조국통일을 위한 청년학생연대, 결의모임형식의 《통일문화의 밤》 등 다채로운 통일축전행사들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통일유훈을 받들어 기어이 조국통일을 이룩할 철석의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다.

이밖의 대회기간에 진행된 조국통일대론회, 조국통일을 위한 청년학생연대, 결의모임형식의 《통일문화의 밤》 등 다채로운 통일축전행사들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통일유훈을 받들어 기어이 조국통일을 이룩할 철석의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다.

이밖의 대회기간에 진행된 조국통일대론회, 조국통일을 위한 청년학생연대, 결의모임형식의 《통일문화의 밤》 등 다채로운 통일축전행사들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통일유훈을 받들어 기어이 조국통일을 이룩할 철석의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다.

머칠것 출근하기 위해 광복거리에서 평양역행 뺨스에 올랐던 나는 뺨스안에서 낮모를 두 너인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고 생각해보았다.

이다.

공화국정부는 온 겨레가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크나큰 상실의 아픔으로 퍼눈물을 흘리고 이를 기화로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북침전쟁책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던 정세속에서도 전민족을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제5차 범민족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것을 내외에 선포하였다.

8월 13일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셔져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앞에서는 제5차 범민족대회 개막행사일정으로 통일실천결의집회가 큰 규모에서 특색있게 진행되었다.

한편 민족공동의 통일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로 나가려던 북측대표단의 판문점통과가 미국과 남조선 《문민정권》의 차단행위로 하여 실현되지 못한것과 관련하여 북측대표단은 판문점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의 무분별한 책동을 단호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정말 우리 예술이 최고다.》(술)을 주제로 한 공연의 흐름이 마음에 들었다. 《젊은 세대 배우들이 활약하는 모습도 인상이 남았다.》, 《태년에도 꼭 공연을 관람할수 있으면 좋겠다.》...

《힘들지 않아요? 평양역앞에서 내려서 다시 통일거리로 가는 뺨스를 갈아타야 하는데... 아무리 손녀가 고아도 그렇지요.》

이렇듯 광복거리에서 통일거리까지 한달음에 달려갈수 있듯이 우리 겨레 모두가 바라는 통일도 지척에 있으면 얼마나 좋으랴.

그러나 밤이 깊어도 새날은 오기마련이고 길이 멀어도 끝이 나기마련이듯이 조국통일의 아침은 반드시 밝아 오고야말것이다.

제5차 범민족대회 개최가 선언되고 《조선은 하나다》, 《범민련가》의 노래주악이 울리는 가운데 범민족대회기발이 입장, 개막되었다. 대회에서는 먼저 북과 남, 해외에서 대회에 참가할 20만여명 이상의 축하문, 축가들이 소개되었다.

남조선에서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과 《한총련》을 비롯한 65개 학생, 시민단체들이 제5차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를 결성하고 대회의 성과적개회를 위한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반통일분열주의자들의 극악한 탄압으로 예정된 날자인 13일에 대회가 진행될수 없게 되자 그들은 대회장소를 서울대학교로 정하고 다음날인 14일 이곳에 집결하여 서울범민족대회 개막을 선포하였다.

서울범민족대회는 비록 반통일분열주의자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하였지만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의 역사적속원을 기어이 성취하려는 온

《정말 우리 예술이 최고다.》(술)을 주제로 한 공연의 흐름이 마음에 들었다. 《젊은 세대 배우들이 활약하는 모습도 인상이 남았다.》, 《태년에도 꼭 공연을 관람할수 있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예술이 최고다.》(술)을 주제로 한 공연의 흐름이 마음에 들었다. 《젊은 세대 배우들이 활약하는 모습도 인상이 남았다.》, 《태년에도 꼭 공연을 관람할수 있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예술이 최고다.》(술)을 주제로 한 공연의 흐름이 마음에 들었다. 《젊은 세대 배우들이 활약하는 모습도 인상이 남았다.》, 《태년에도 꼭 공연을 관람할수 있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예술이 최고다.》(술)을 주제로 한 공연의 흐름이 마음에 들었다. 《젊은 세대 배우들이 활약하는 모습도 인상이 남았다.》, 《태년에도 꼭 공연을 관람할수 있으면 좋겠다.》...

이리하여 공화국에서는 1994년 8월 11일 범민련 북측본부대변인의 이름으로 제5차 범민족대회를 계획대로 진행하게 된다것과 8월 13일에 해외의 5명의 대표들을 일별 도교로 보내며 8월 14일에는 서울대회에 참가할 10명의 대표들을

이리하여 공화국에서는 1994년 8월 11일 범민련 북측본부대변인의 이름으로 제5차 범민족대회를 계획대로 진행하게 된다것과 8월 13일에 해외의 5명의 대표들을 일별 도교로 보내며 8월 14일에는 서울대회에 참가할 10명의 대표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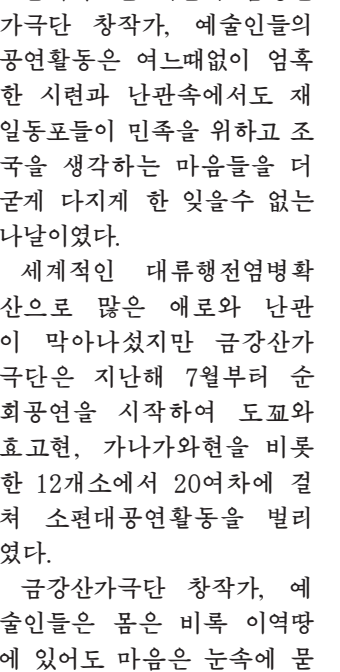
이리하여 공화국에서는 1994년 8월 11일 범민련 북측본부대변인의 이름으로 제5차 범민족대회를 계획대로 진행하게 된다것과 8월 13일에 해외의 5명의 대표들을 일별 도교로 보내며 8월 14일에는 서울대회에 참가할 10명의 대표들을

이리하여 공화국에서는 1994년 8월 11일 범민련 북측본부대변인의 이름으로 제5차 범민족대회를 계획대로 진행하게 된다것과 8월 13일에 해외의 5명의 대표들을 일별 도교로 보내며 8월 14일에는 서울대회에 참가할 10명의 대표들을

이리하여 공화국에서는 1994년 8월 11일 범민련 북측본부대변인의 이름으로 제5차 범민족대회를 계획대로 진행하게 된다것과 8월 13일에 해외의 5명의 대표들을 일별 도교로 보내며 8월 14일에는 서울대회에 참가할 10명의 대표들을

이리하여 공화국에서는 1994년 8월 11일 범민련 북측본부대변인의 이름으로 제5차 범민족대회를 계획대로 진행하게 된다것과 8월 13일에 해외의 5명의 대표들을 일별 도교로 보내며 8월 14일에는 서울대회에 참가할 10명의 대표들을

이리하여 공화국에서는 1994년 8월 11일 범민련 북측본부대변인의 이름으로 제5차 범민족대회를 계획대로 진행하게 된다것과 8월 13일에 해외의 5명의 대표들을 일별 도교로 보내며 8월 14일에는 서울대회에 참가할 10명의 대표들을



제5차 범민족대회 개막식. 위대한 수령님의 유언을 철저히 관철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는것은 공화국의 일관한 립장이고 확고한 의지이다.

# 농촌진흥의 레일을 마중간다



농촌진흥의 휘황한 레일을 밝힌 새로운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을 받아안은 공화국의 각지 농업근로자들의 격동은 그 누구보다 남다르다.

《전원회의보고의 구절구절마다에서 우리 농업근로자들에게 세상에서 제일가는 사회주의리상촌을 안겨주려는 조선로동당의 인민사랑의 세계를 다시금 절감하였습니다.》

《가까운 앞날에 전국의 모든 농촌마을을 삼지연시 농촌마을의 수준으로,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리상촌으로 만들에 대한 내용을 깊은 감동속에 받

아안았습니다.》

이번에 공화국의 농업근로자들이 받아안은 사랑과 믿음은 얼마나 큰 것인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불리한 조건에서도 농사를 잘 짓는데 적극 기여한 농업부문의 모범적인 일꾼들과 근로자들,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장 보내자라는것을 정중히 제의하시었다.

또 농촌이 제발로 일떠서게 하고 농

장들의 경제적대배를 보장해주기 위한 중요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협동농장들이 국가로부터 대부를 받고 상환하지 못한 자금을 모두 면제해달에 대한 특혜 조치도 취해주시었다.

지금 공화국 그 어디를 가보아도, 그 누구를 만나보아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은정에 고마움을 금치 못하면서 우리식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위대한 투쟁강령을 무조건 결사관철 해갈 의지를 안고 그 어느때보다 분발하여 떨쳐나섰다.

새해에 들어와 며칠동안에 전국적으

로 백수십만의 거름을 포전에 실어냈으며 1천여정보의 농경지에 흙갈이를 진행하는 성과가 기록되었다.

세계농업발전추세에 맞게 농업생산의 과학화, 정보화, 집약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연구과제들을 맡아 기여이 훌륭한 결실을 이룩할 열망안고 피라는 사색과 열정을 바쳐가는 농업부문의 과학자, 연구사들, 온 나라 농촌을 우리가 만든 현대적인 농기계들로 뒤덮고 농업근로자들이 기계로 농사를 흉경게 짓는 사회주의농촌의 새 풍경을 안아올 열의에 불타있는 금성트랙트르공장의 근로자들, 기어이 다수확을 이룩하여 오늘의 농민영웅, 애국농민이 될 고결한 지향을 안고 사는 농업근로자들...

조선로동당이 밝힌 새로운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이 있고 농업근로자들의 불같은 애국심이 있어 농촌진흥의 휘황한 레일은 머지 않아 현실로 펼쳐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춘경



## 독재문답

제카나나동로 최수만선생이 제기한 질문

### 공화국의 사회주의농촌건설목표는 무엇인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분수령으로 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는 공화국의 현실은 사회주의농촌건설에 힘을 넣을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2021년 12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는 공화국의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새시대를 알리는데 위대한 투쟁강령

을 제시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원회의에서 하신 보고 《우리식 사회주의농촌발전의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나가자》에서 사회주의농촌건설목표는 온 나라 농촌을 주체사상화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만드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제고, 농업생산력의 비약적발전, 농촌생활

환경의 근본적인 개변이 우리식 농촌발전에서 점령해야 할 목표라고 하시었다.

다시말하여 전체 농업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공산주의적인 간으로 만들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농업생산과 농촌건설에서 근본적인 개조변혁을 이룩하여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것이다.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새로

운 사회주의농촌건설목표는 농촌진흥을 강력히 다그쳐 나라의 농업을 확고한 상승단계에 올려세우고 농촌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전면적부흥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불멸의 대강인것으로 하여 농업근로자들을 비롯한 온 나라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본사기자

## 《한민정음》과 《파리정음》의 차이점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을 뛰어넘어 슬기와 지혜로 세상에 널리 자랑할만한 문화적재부를 수많은 창조하였다.

그중에는 1444년 1월에 창제된 《한민정음》도 있다.

《한민정음》은 글자에서 가장 발전된 류형인 낱소리글자로서 우리 말의 풍부한 말소리들을 다 잘 나타낼수 있는것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 말소리들도 거나 나 배설수 있게 되어있다. 또한 음운체계의 특성과 글자체계를 기본적으로 대응시켜 만든것으로 하여 독자적인 음운들을 거다 기본글자로 나타낼수 있는 우점을 가지고있다. 《한민정음》은 혀, 입술, 목구멍 등과 같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따서 기초글자들을 만들

고 그것들을 기본으로 하면서 말소리들의 특성에 맞추어 획을 더하거나 두개 또는 세개 글자들을 합치는 등 체계성있게 만들어졌다. 배우기 쉽고 쓰기 편리하다는것도 《한민정음》의 우점의 하나이다. 사람의 매 발음기관의 모양에 따라 글자모양을 만들고 거기에 순환소리, 거센소리의 성질에 따라 글자획을 더해준것, 된소리를 같은 소리의 영킹으로 보고 같은 자음을 반복하여 쓰도록 한것 등은 참으로 경탄할만한 발견이었다.

하기에 언어학에서 제노라고 자부하는 영국 옥스포드종합대학에서 합리성과 과학성, 독창성 등의 기준으로 세계 모든 문자의 순위를 정하였는데 그 1위가 바로 다름아닌 조선글자였다. 사실, 국제무대에서 진행된 《언어유티픽》

에서 조선어가 의외의태어가 가장 많은 언어로 매권을 쥐었다는 사실들은 실로 조선훈어에 기초한 하나의 단 없이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로 된다.

오랜 력사적기간 발전하여온 아름답고 세련된 조선어는 해방후 공화국에서 평양문화어로 발전하여왔다.

평양문화어는 공화국의 인민적인 언어정책에 의하여 민족적특성이 높게 발달되고 시대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발전하는 우리 민족의 표준어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평양의 언어를 기준으로 하여 민족어전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하시였으며 한자사용의 전면폐지와 언어정화, 어휘정리사업을 나라의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들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는 평양문화어는 주체적이고 민족적인 특성이 살아나는 언어로 더욱 발전하고있다.

지난날 우리 말에 끼여들어왔던 까다롭고 불필요한 외래어적요소들이 가세되고 고유어에 기초한 하나의 단 어체계가 세워짐으로써 민족적특성을 가장 높은 단계에서 순결하게 고수해나가고있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미래를 위하여》, 《미래과학자거리》, 《창전거리》, 《려명려관》, 《금산로복산물상점》 등과 같은 우리 말에는 그 얼마나 민족성이 차넘치는 것인가.

참으로 아름답고 고상한 평양문화어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민족의 더없는 긍지이고 자랑이다.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연구사 리성철

말을 듣고있지만 그어가 나서부터 다 자라도록 정말 많은 고생과 고통을 들여왔다. 자식 하나 키우자 해도 그렇게 힘든데 한낱한시에 세상들을 낳아 키우는 어머니의 수고를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는가.

육아는 곧 돈이다. 그래서 많은 나라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한 녀성의 경우에도 다태아를 큰 부담으로 여기는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하지만 조국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나는 조국에서 세상들이들이 어떻게 태어나 자라고있는지 잘 알고있다.

내가 알고있는데 의하면 삼태임신으로 의문시되는 녀성들은 해당 치료에방기관료의료인근들과의 연계밑에 평양산원에서 검진을 받는다. 삼태임신으로 진단된 녀성들은 즉시 평양산원에 입원하여 건강관리를 보장받는다.

세상들이들은 육아원에서 담당사와 담당 간호원의 직접적인 보호속에 자라게 된다. 그들의 어머니에게도 전문과 의사를 고정담당시키는 건강보호체계를 세워놓는다. 세상들이들은 국가적인 부담으로 육아원에서 키워주며 소학교에 갈 때까지 생활조건을 보장받는다.

세상에서 자식을 가장 중히 여기는것은 어머니라지만 그 어머니와 태어날 자식을 모두 안아 보살펴주는 국가의 해례를 그 어디에 비길수 있겠는가.

나는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하는가고 묻는 교장의 말소리에 생각에서 깨었다.

재종동포 김영란

나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행복한 어머니들에 대하여 생각하던 참입니다.》

한여름의 바람결이 학교정문을 나서는 나의 귀머리리를 훑아냈다.

무엇때문인가, 누구때문인가, 나는 어느 한 나라에서 10대의 소년들을 칼로 무참히 죽였다는 청년살인범에 대한 기사를 다시한번 상기했다.

청년이 그렇게 되돌아오는 법칙의 길로 나가도록 인도한것은 과연 누구인가.

대답은 명백하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해도 절대적으로 자식의 미래를 책임질수는 없으며 오히려 크게 성장시킬수 없다.

온 나라 아이들을 모두 한 품에 안아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보살피며 참되게 교육교양하는 국가만이 그들의 미래를 꽃피울수도, 책임질수도 있는것이다.

나는 그 누군가의 말을 상기했다.

《진실한 사랑없는 교대판실은 무덤과 같다.》

재종동포 김영란

《외래어에 오염되어가는 우리 말》

남조선의 어느 한 출판물은 남조선에서 아름답고 우수한 우리 말이 파괴되고 거리간관, 건물이름, 방송등에 외래어가 밀려나고있고, 녀의 녀과 정서가 파괴되고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이렇게 지적하였다.

요즘 우리 말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는 너무나 걱정스럽다. 얼마전 길을 가다가 대어섯살 아이가 된가를 보고

《와우!》 하며 크게 놀라는 장면을 목격했다.

《와우》라던 영어감탄사일텐데 영어감탄사까지도 일상적인 우리 말로 둔갑해 대어섯살 아이의 입에서도 자연스럽게 튀어나오고있는것이다. 대중가요의 제목으로, TV프로제목으로 쓰이기 시작한 옛것과 같은데 어느새 자연스러운 우리 말의 일부인양 돼버렸다.

굳이 이런 예를 들지 않더라도 도심길거리를 걸어가면서 유심히 한번 관찰해보라. 오래된 몇몇 건물은 한자어로 되어있긴 하지만 신식고층건물은 대부분 외래어로 되어있다.

어떤건 아예 외래어로 볼수 없는 외국어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우리 말의 소리를 약간 변형시키거나 또는 《한글》은 전혀 드러내지 않고 외래어, 외국어처럼 보이게 만든 경우도 있다.

아빠트림이나 일반가게 이름도 마찬가지이다. 정감있는 순 우리 말로 된 이름을 찾아보는건 가물에 콩나듯 귀히 적다.

요즘 새로 지어지는 서양식건물을 가리키는 일반명사, 통상적인 건물들이

로도 모두 외래어로 되어있다. 《빌딩》, 《맨션》, 《펜션》, 《호텔》 등이 그런 예이다.

이카운테 《빌딩》은 본래 일대사무실을 가지고있는 서양식의 고층건물을 가리켰으나 이젠 그저 《고층건물》을 가리킨다.

《펜트하우스》는 아바트분양을 광고하는데서 자주 쓰이는 말인데 이 말은 본래 기계실로 리용되거나 물탱크가 있는 옥상창고로 뜻하는 영어였다고 한다. 최근에는 아바트나호텔같은 건물의 꼭대기에 있는, 매우 값비싼 주거공간을 뜻하는 말로 더 널리 쓰이고있다. 그런데 《펜트하우스》는 누구나 관심만 가지면 손쉽게 적절한 우리 말로 바꾸어 쓸수 있는 외래어가 아닐까싶다.

현재 우리 말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이러할진대 우리 말의 발전과 미래는 기약하기 힘들다.

본사기자

##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남조선농민들의 처지

에로부터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고 하였다. 그만큼 사람들의 생활에서 식량문제가 중요하기때문이라 해야 할것이다.

하나 남조선에서는 농사가 천하지대본이 아니라 《천하지대단》으로 천시되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농민들의 소득이 계속 줄어들고있고 농민들이 계속 줄어들고있다.

농사에 필요한 연료와 비료, 농약원료를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있는 남조선에서는 영농자재비가 오르면서 농민들의 소득에 악영향을 미치고있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농민들의 총수입에서 영농자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4%에서 2020년 67.5%로 증가하였으며 영농자재 구입가격이 농산물판매가격보다 더 큰폭으로 오르면서 농민들의 수입이 계속 줄어들고있다. 게다가 농민들의 평균나이는 59살로서 고령화되어있기때문에 생산성도 떨어지면서 농민들의 소득이 체계적으로 감소하고있다고 한다.

그리고 남조선에서 농민들의 년평균소득은 도

시근로자들의 60%밖에 되지 않으며 이로부터 농민들은 농사일로만 살수 없어 겸업을 하면서 막대한 처지에서 심하고있다.

특히 최근년간 남조선농민들은 농사에서 제해성기후의 영향을 심하게 받고있는데 2020년 연이어 들어닥친 장마와 태풍피해로 15만 7 000여ha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으며 매 농가가 평균 3만 1 000US\$이상의 빚을 지고있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남조선에서는 외국산농산물에 대한 시장개방으로 농민들의 생활기반이 큰 타격을 받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에서는 전체 알곡수요량중 약 80%를 외국산농산물로 충당하고있다.

이로부터 많은 농민단체들이 농촌을 황폐화시키고 농민들의 명줄을 끊어놓는 남조선당국의 반인민적인 농업정책을 반대하여 격렬한 투쟁을 벌이고있다.

본사기자



“농민에게 복지, 농업은 산업화 필요”

가물에 애타는 농심, 도시는 알까

## 북녘의 교육현장을 가다

### 내가 알게 된 세상들이 (2)

화려한 조선치마저고리를 차려입은 북소리엔 얼굴의 방송원은 세상들에게 물었다.

방송원: 《이렇게 우리의 무대로 세상들이들이 나와섰는데 어느 학교에 다니는가요?》

세상들이: 《우리들은 금성제1중학교 4학년에서 공부하고있는 세상들이들입니다.》

방송원: 《부모님들이 얼마나 대견해하셨나요.》

세상들이3: 《아마 우리 어머니는 지금 또 우실겁니다.》

방송원: 《우신다구요?》

《?!》

나도 TV속의 방송원도 깜짝 놀랐다.

방송원의 놀라움이 리해된다는듯 얼굴이 발기우리하게 샅기런 처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우리 어머니는 평범한 군관의 안해입니다. 온 나라의 보살림과 관심속에 우리 세상이를 낳게 되었는데도 고마움 일인데 나라에서 우리 세상들이들에게 보내준 사랑의 금반지까지 받아안고보니 너무나도 고마워 감격의 눈물들이

흘렀다고 합니다. 나라에서는 육아원과 육아원에서 우리를 키우려고 우리 세상들이들에게 불원이 있을세라 이전보다 더 좋은 네칸짜리 덩실한 집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고마움에 목이 딱 메여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양으로 공부하러 오던 날 어머니는 우리모두를 품에 꼭 안고 이렇게 고마운 당의 은덕에 무엇으로 보답하겠느냐고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훌륭한 무대에서 노래부르는것을 보시면 어머니는 너무 고맙고 기뻐 또 우실겁니다.》

나는 슬하에 무남독녀 외팔을 두고있지만 그어가 나서부터 다 자라도록 정말 많은 고생과 고통을 들여왔다. 자식 하나 키우자 해도 그렇게 힘든데 한낱한시에 세상들을 낳아 키우는 어머니의 수고를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는가.

육아는 곧 돈이다. 그래서 많은 나라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한 녀성의 경우에도 다태아를 큰 부담으로 여기는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하지만 조국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나는 조국에서 세상들이들이 어떻게 태어나 자라고있는지 잘 알고있다.

내가 알고있는데 의하면 삼태임신으로 의문시되는 녀성들은 해당 치료에방기관료의료인근들과의 연계밑에 평양산원에서 검진을 받는다. 삼태임신으로 진단된 녀성들은 즉시 평양산원에 입원하여 건강관리를 보장받는다.

세상들이들은 육아원에서 담당사와 담당 간호원의 직접적인 보호속에 자라게 된다. 그들의 어머니에게도 전문과 의사를 고정담당시키는 건강보호체계를 세워놓는다. 세상들이들은 국가적인 부담으로 육아원에서 키워주며 소학교에 갈 때까지 생활조건을 보장받는다.

세상에서 자식을 가장 중히 여기는것은 어머니라지만 그 어머니와 태어날 자식을 모두 안아 보살펴주는 국가의 해례를 그 어디에 비길수 있겠는가.

나는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하는가고 묻는 교장의 말소리에 생각에서 깨었다.

재종동포 김영란

나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행복한 어머니들에 대하여 생각하던 참입니다.》

한여름의 바람결이 학교정문을 나서는 나의 귀머리리를 훑아냈다.

무엇때문인가, 누구때문인가, 나는 어느 한 나라에서 10대의 소년들을 칼로 무참히 죽였다는 청년살인범에 대한 기사를 다시한번 상기했다.

청년이 그렇게 되돌아오는 법칙의 길로 나가도록 인도한것은 과연 누구인가.

대답은 명백하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해도 절대적으로 자식의 미래를 책임질수는 없으며 오히려 크게 성장시킬수 없다.

온 나라 아이들을 모두 한 품에 안아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보살피며 참되게 교육교양하는 국가만이 그들의 미래를 꽃피울수도, 책임질수도 있는것이다.

나는 그 누군가의 말을 상기했다.

《진실한 사랑없는 교대판실은 무덤과 같다.》

재종동포 김영란



### 시론

## 전쟁전후수익이 막대한 경제

얼마전 남조선군이 판도주변수역에서 벌어지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연합 반잠수함훈련 《세드레이크》에 참가하였다고 한다.

이번 훈련은 해상순찰기들이 가상의 《적》 잠수함을 추적, 탐색하고 반잠수함작전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중이라고 한다.

한편 남조선군은 강원도와 경기도 등지에서도 《혹한기》 야외기동훈련을 벌이고있다.

지난 한해 동안 남조선의 호전세력이 과욕적인 군비증강과 전쟁책동에 광분하여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자들이 올해 정초부터 또다시 남조선에서 화약냄새 풍기며 동족대결의 불장난을 해대고 그것으로도 성취치 않아 해외까지 나가 전쟁광기를 부리는것은 평화를 바라는 민족의 지향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고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도발로서 그들이 임버쳐려 위우는 《평화》란 동족대결과 복잡전

# 반미, 반전투쟁과 통일운동을 더욱 고조시킬 의지

## —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 —

새해에 들어와 남조선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이 반미, 반전투쟁과 통일운동을 계속 줄기차게 벌어나갈 의지를 표명해 나가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전한데 의하면 6.15남측위원회와 산하 조직들인 청년학생본부, 녀성본부, 문예본부 등은 물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를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이 각종 송년모임, 년화장정대회를 통해 새해에 자체의 통일운동력량을 확대강화하며 분렬주의 사연습과 무력증강, 군비증액책동을 반대배격하는 다양한 활동을 적극 벌어나갈것을 다짐하였다.

특히 여러 계기들에 북과 남이 공동행동을 취하기 위한 련대활동도 계획하고있다고 밝혔다.

친주교주교회의, 《대한불교진각중》, 《대한불교천태종》을 비롯한 종교단체들과 겨레하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도 반전평화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 립장을 표명하였다고 한다.

한편 얼마전 광주진보연대를 포함한 전국민중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남조선미국군사연습의 영구중단, 《씨드》전략무기 도입을 강력히 반대배격하면서 앞으로 진행할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이를 위해 투쟁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지난해 《광복 76주년 한반도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대회》 등을 주최한 정의당, 진보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도 새해 정초에 《정부》가 대화를 희망한다는 립장만 반복할것이 아니라 《대북적대시정책》철폐와 같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제반 사실들은 새해에 들어와서도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반전, 반미투쟁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더욱 높아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난해에 남조선의 여러 지역과 인터넷상에서 진행되었던 반미, 반전 투쟁들

남조선에서 여야당의 《대통령》선거후보들이 《작으면서도 확실한 집행》에 대해 떠들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사기 위한 《생활밀착형공약》이라는것을 개발 및 광고하는 놀음에 경쟁적으로 매달리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의 선거력사상 전례가 드문 정치막간극이라고 할수 있다.

현재 남조선정국을 놓고보면 민심의 반수정도는 여야당의 후보들에게 등을 돌린 지 오래다.

어느 정당도,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정치무관심, 선거무관심, 후보무관심 등이 높아지고 특정후보를 지지하던 계층들도 지속되는 당파싸움과 후보들간의 후색선전에 도리머리를 저으며 등을 돌리고있는 형편이다.

이들을 납기 위해 고안해낸 것이 중도층, 정치무관심층의 교총, 교공, 아몸을 《리해》

## 환멸만을 불러오는 선심성공약들

《보완》한다는 《생활밀착형공약》인것이다.

하지만 속병 끝는데 외용약을 바르는 격이라고 할수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 윤석열이 내놓는 공약이라는것은 유지하고 몰상식한것으로 하여 비난의 대상이 되고있다.

남조선에서 취약계층에 속하는 녀성문제를 더 중요시하고 녀성들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은 없이 일방적으로 《녀성가족부패지》를 운운하고있으니 과연 누가 거기에 공감하겠는가 하는것이다.

그러니 녀성들로부터 《부인이 온갖 범죄로 문제가 되니 녀가부패지를 들고나오다》, 《거머리처럼 표뿔아먹겠다고 던진 녀성혐오》라는 비난을 받게 되는것이다.

청년들도 《녀성혐오가 아니고서는 이대남(20대남성) 표심을 당길 방법을 찾지 못하는 윤후보와 《국민의힘》이 불쌍하다》, 《녀가부패지가 아니라 녀성혐오정당(국민의힘)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지지표를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돌아쳐도 지지를

## 갈수록 치열해지는 정치권싸움

《연합뉴스》를 비롯한 남조선언론들이 년초에 들어와 《국민의힘》 윤석열의 지지율이 처가의 부정부패와 당내갈등을 비롯한 각종 악재로 급속히 하락한 소식과 이로 하여 윤석열이 얼마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를 전격 해산하고 새로 구성한데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다.

그에 의하면 《국민의힘》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중헌은 윤석열이 린이는 말실수와 처가의 부정부패사건으로 하여 자신은 물론 당의 지지율까지 대폭 끌어내리자 윤석열에게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각본을 써주도록 연기를 해달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그를 폭두 각시 취급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속에 당대표 리준석도 윤석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대통령》선거에서 이길수 있다고 조롱한것으로 하여 《국민의힘》내부의 갈등과 혼란은 더욱 격화되었다고 한다.

## 정치인 OUT

《정치인 OUT》는 정치인 및 정계를 감시하는 공직자는 출입을 금지한다.

《내가 경쟁자와 포용하는것은 그를 목졸라 죽이는것이다》

《고대로마의 독재자 네로가 한 말이다. 내부분쟁과 갈등으로 흥을 잃은 《국민의힘》이 《국적인붕합》을 하고 《하나의 팀》을 구성했다고 하는 리준석이 서로 포용하는 모습을 보면 우의 고사가 절로 떠오른다.

그도 그럴것이 《애송이》, 《정치생들》이라고 서로가 무시하고 비난하고 경원시하며 뛰쳐나가고 다시 합치고하기를 그 몇번, 과연 이번에는 제대로 《한몸》이 되었을가.

리준석이 자칭 《평강히성공적》이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아니라하는것이 일반적여론이다.

《국민의힘》 내부의 말들

남조선에서 회세의 악녀인 박근혜가 4년 9개월동안 감옥생활을 하는 과정에 극우세력들과 주고받은 편지를 종합하여 발간한 도서가 화제거리로 되고있다고 한다.

주목되는것은 박근혜가 그 도서의 어느 구석에도 자기 자신을 특대형부정부패범죄에 대해 일말의 사죄나 반성도 하지 않았다는것이다.

《혼신의 힘을 다하였던 일들이 적체로 락인적이었다》, 《목목히 자신의 직분을 충실히 리행하였던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는 모습을 지켜보는것은 참을수 없는 고통이었다》, 《《세월》호침몰당시 해피한 소문과 악의적인 포함들이 있었다》, 《1주일에 4번씩 감행되는 《살인적인 재판》을 참

자기의 추문사건수사를 담당하였던 윤석열에 대해 《녀리에서 지울수 없는 중의 대상》이라고 비난했고 윤석열의 측근으로서 당시 《세누리당》 탄핵추소위원장과 《최순실정국청문회》에서 청문위원으로 활동하였던

에미가 활개치던 《유신》 독재에 대한 향수이고 독단과 독선, 부정부패를 일삼던 자기의 집권시대에 대한 그리움일것이다.

언젠가는 자기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린 수천만의 초불민심에 무자비한 복수의 칼을 들이대겠다는 앙심도 그대로 여기에 비껴있다.

이런 앙심을 풀지 못해 그가 끝병을 앓고있는것이 아닌지... 죄악의 음지에서 꿈틀거리던 악녀가 발간한 도서, 그것은 진보세력에 대한 선전포고, 력사의 흐름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다. 만일 박근혜에게 다시 정계의 길을 열어준다면 제2박근혜 《정권》, 《유신》의 부활을 위해 몸부림칠것이라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김정혁

## 반드시 결산해야 할 일본의 최행

지난 1월 5일은 남조선의 각계층 시민단체들이 지난 세기 십나라야만들이 저지른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단죄하고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하여 《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집회》를 시작한 때로부터 30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 12시 서울에서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1525차 수요집회를 개최한 남조선의 《정의기억연대》(《정의의연》)와 피해생존자 할머니들을 비롯한 수백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일본정부는 공식 사죄하라》, 《우리가 있는 한 일본의 만행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구호판들을 들고 일본당국을 일본군성노예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배상, 책임자처벌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이미 세상에 그 진실이 남김없이 폭로된것처럼 지난 세기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본제는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국가적강령으로 유괴, 랍치하여 침략군의 성노예로 전락시켰다.

인류력사에는 라민족을 대상으로 벌린 외래침략자들의 반인륜적범죄들이 수많은 기록되어있지만 일본과 같이 《전쟁능력체고》라는 구실밑에 조선녀성들을 침략전쟁터에 끌고다니며 그들의 청춘의 삶과 모든 권리를 강탈하고 목숨까지 빼앗는 몸서리치는 만행을 서슴없이 저지른 레는 찾아볼수 없다. 정선나라족속들이야말로 력사에 전무후무한 가장 비열하고 추악하며 잔악무도한 악마의 무리이다.

하기에 우리 민족은 일본군성노예범죄에 처를 떨면서 《조선녀성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왜나라족발의들의 반인륜범죄를 우리 민족은 반드시 친백배로 결산할것이다》라고 복수의 의지를 다지고있다.

조선민족과 아시아인민들에게 저지른 침략행위와 반인륜범죄에 대하여 옹바로 반성하고 깨끗이 청산하는것은 모범할수 없는 일본은 친백배로 결산할것이다》라고 복수의 의지를 다지고있다.

조선민족과 아시아인민들에게 저지른 침략행위와 반인륜범죄에 대하여 옹바로 반성하고 깨끗이 청산하는것은 모범할수 없는 일본은 친백배로 결산할것이다》라고 복수의 의지를 다지고있다.

그러나 일본은 허망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기 위해 날뛰는것은 이미 저지른 죄악을 새로 운 죄악을 더하는것으로서 전체 조선민족과 세계평화에 호인민들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이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일본이 우리 겨레에게 저지른 치명적인 반인륜적범죄를 추호도 용서치 않고 친추만대를 두고 기어이 결산할것이며 당면하여 일본해 침략전쟁에 날뛰다가 패망한지 70여년이 넘었고 남조선에서 일본군



성노예범죄해결을 위한 수요 집회가 시작되기도 3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과거죄악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지 않고 있어도 도리어 침략력사를 찬미하며 군국주의부활과 제침략통에 광분하고있다.

지난해에 진행된 유엔인권리사회 제47차회의에서 과거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 모집하였다는것은 꾸민이 야기라고 강변한 일본은 뻔 뻔스러운 태도는 섬나라족속들의 철면피성, 도덕적저질성과 함께 대립하지 않는 침략적본성을 다스림 확충해 주고있다.

과거죄악청산을 외면하며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기 위해 날뛰는것은 이미 저지른 죄악을 새로 운 죄악을 더하는것으로서 전체 조선민족과 세계평화에 호인민들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이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일본이 우리 겨레에게 저지른 치명적인 반인륜적범죄를 추호도 용서치 않고 친추만대를 두고 기어이 결산할것이며 당면하여 일본해 침략전쟁에 날뛰다가 패망한지 70여년이 넘었고 남조선에서 일본군

목철웅

발전향상과 친환경의 실현



만능트랙도르도안

만능트랙도르도안
이 도안에서 특징적인것은 유압을 리용하여 기관부가 있는 앞부분에서는 전면삽을, 뒷부분에서는 굴착삽을 쓸수 있게 한것이다.



경운기형대도안

경운기형대도안
경운기로는 연결차대신에 다른 농기구를 연결하여 짐운반외에도 밭갈이와 흙부스르르리는 작업 등을 비롯한 여러가지 농사일을 할수 있다.



10hp 소형트랙도르도안

10hp 소형트랙도르도안

10hp 소형트랙도르도안은 전야를 힘차게 내달리는 소형트랙도르의 모습이 직관적으로 안겨오게 형태학적으로, 조형예술적으로 완성되어있다.

본사기자 김철

전원기법

금강봉과 금강굴

함경북도 명천군 보춘리에 있는 금강봉과 금강굴은 함북《금강》으로 알려진 철보산의 천불봉(659m) 남쪽에 있는 바위봉우리와 바위굴이다.

이 지역에서 뿜어나오는 알카리조면암수에 류문암이 덮였다가 땅결임작용과 봉락으로 주변지역이 무너져 내려가면서 독립적으로 높은 봉우리를 이루었다.

금강봉꼭대기에서 약 100m 떨어진 아랫쪽에 금강굴이 있다. 사자입처럼 생긴 금강굴은 너비 12m, 길이 20m인 자연동굴이다.

명곡해설

조선행진곡

가요 《조선행진곡》은 작곡가 김원균이 해방된 기쁨을 누릴길 없어 단숨에 가사를 지어 자기가 살던 집 담장에 써붙이고 불렀던 추억깊은 노래이다.



본사기자



진사유물

신기전

신기전은 신묘한 불화살이란 뜻이며 15세기전반기에 우리 선조들에 의해 만들어져 실전에서 큰 은을 내곤 하였다.

신기전은 신묘한 불화살이란 뜻이며 15세기전반기에 우리 선조들에 의해 만들어져 실전에서 큰 은을 내곤 하였다.



본사기자

사화

돌칸한증 (2)

그림 김윤일

가마안이 어지간히 달아올랐을 때 두사람이 먼저 들어가 땀을 내보았다. 그랬더니 원래의 가마보다 더 뜨겁고 땀도 잘 나는데 나무재가 몸에 묻고 땀에 범벅이 되어 매우 불편하였다.

행되고 크게 성형하였다. 돌칸한증 발기자인 최서방도 한증가마를 크게 다시 쌓고 거기에 잇달아 몸뚱이는 칸을 지어놓았는데 등짐장사를 하던 때보다 사는 형편도 편아나지 않게 되었다.



겨울철의 《바다의 우유》, 《완전식품》으로 불리는 굴은 자기의 고유한 맛과 풍부한 영양성분을 가지고있어 소비된 열량을 보충하는데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되고있다.

겨울철건강에 좋은 굴

노산이 많고 다른 단백질에 비하여 소화가 잘된다. 굴은 경련을 멈추고 피순환을 좋게 하며 혈압과 콜레스테롤, 혈당을 낮추고 간기능을 높이며 항암작용도 한다.

이르는 11월부터 2월사이 에 따는것이 제일 맛이 좋고 효능도 높다고 한다.

본사기자

눈길을 끄는 피부보호제품들

Advertisement for skin care products including '피부보호영' and '소젖 피부보호영' with images of bottles and packaging.

의병장 최익현



1906년 여름 어느날 썸시마에 조선으로부터 오는 배 한척이 닿았다.

최익현은 썸시마에 귀양을 오는 최익현과 그의 부하 림병찬이었다. 육에 갇혔으며 왜놈들이 주는 음식을 사들, 닳새가 지나도 전혀 입에 대지 않은 최익현의 눈에는 비장한 빛이 어렸다.

최익현은 썸시마에서 마지막까지 애국적지조를 굽고 지키다가 눈을 감았다.

본사기자